"새만금 국가사업 정상화하라"

전북 연고 기업 2527곳, 국회서 '한목소리' … 새만금 삭감 예산 원상복구 호소

전북 연고 기업 2527곳이 새만금 국가사업 정상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윤방섭 전라북도 상공회의소협의회장을 비롯한 지역 경제단체와 기업인 대표들은 지난달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2527개 기업체 호소문을 통해 "새만금의 중앙부처 예산안의 78%가 삭감돼 기업들의 투자에 차질이 우려되는 등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예산의 원상회복을 촉구했던 전북인과 국민의 요구가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국회의 진심을 보여주고, 새만금 사업에 대한 정부의 변함 없는 의지를 보여달라"고 새만금 예산의 원상복원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소재철 전북건설협회 회장과 박숙영 전북여성경제인협회 회장, 박금옥 전북여성벤처협회 회장, 김경철 비나텍 사장이 참석했다. 김정기 전북도의회 새만금 실무추진위원장과 조지훈 새만금 국가사업 정상화를 위한 전북인 비상대책회의 사무총장 등도 함께했다.

이들은 "새만금에 애정 있는 국민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국회의 새만금 예산 심사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면서 "새만금 투자를 확정하거나, 지금도 고민 중인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새만금 SOC의 온전한 추진은 기업인들의 간절함이자 기업의 미래 경쟁력"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새만금의 하늘과 바다, 땅의 길을 열어야 그 가치를 높일 수 있고 온전한 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전제한 뒤 "그래야 사람이 몰리고, 기업도 몰린다"라고 새만금 개발의 속도가 대한민국의 경쟁력임을 강조했다.

이들은 또 "대한민국의 꿈과 희망을 위해 국책사업으로 내어준 새만금은 전북인의 피와 땀, 그리고 애환의 눈물이 담겨 있지만 반복되는 계획 변경과 더딘 개발로 애를 태우더니 결국 예산 삭감 대참사로 희망의 물그릇이 아닌 울분 섞인 절망의 노래가 퍼지는 새만금으로 전락해 버렸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그간 출향인을 비롯한 전북인과 정치인들은 삭감된 새만금 예산의 원상회복을 위해 삭발과 단식투쟁, 물집이 차오른 발바닥의 고통을 이겨내며 280km를 뛰는 등 새만금의 정상적인 사업 추진의 간절함을 내보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더 이상 새만금을 정치 논리의 희생양이나, 기업인의 마음을 애태우는 볼모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원칙도 논리도 없이 삭감된 새만금 예산을 원상회복하고 새만금이 동북아경제 중심지로 도약하도록 국가의 의지를 증명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이들은 호소문 발표 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지도부와의 면담을 통해 새만금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예산의 원상회복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뉴시스

윤방섭 전라북도 상공회의소협의회장을 비롯한 지역 경제단체와 기업인 대표들은 지난달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2527개 기업체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국주영은 의장은 지난달 30일 도의회 의장실에서 'NH 함께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성공예금' 가입 서류에 서명했다.

'전북특자도 성공 안착 기원'

국주영은 도의회 의장, 특자도 성공예금 가입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이 전북도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공익기금으로 지원되는 전북특별자치도 성공예금에 가입했다.

국주영은 의장은 지난달 30일 도의회 의장실에서 장경민 NH농협은행 전북본부장과 조상완 경영지원단장, 이재문 지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NH 함께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성공예금' 가입 서류에 서명했다.

이날 국주영은 의장은 "우리 전북은 과거 대한민국의 식량을 책임지는 농도라는 자긍심이 컸지만, 급격한 산업화 속에서 열악한 산업기반 탓에 인구는 줄어들고 각종 발전 정책에서 소외되는 낙후의 악순환에 빠져 있다"라면서 "이러한 악순환을 끊을 기회가 전북특별자치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D-50일을 기념해 농협에서 출시한 성공예금은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전북도민들에게 자신감과 자긍심을 높이는 희망예금이 될 것"이라 기대하며 "예금으로 조성되는 공익기금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위에 부응하는 특별한 변화에 도움이 되는 종잣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주영은 의장은 "많은 전북인이 전북특별자치도 성공예금 가입에 참여해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의 성공 모델을 만들었으면 한다"라고 동참을 호소했다.

국주영은 의장이 이날 가입한 예금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기원하고 홍보를 확대하기 위해 출시됐다. 1인 100만원 이상 정기예금으로 가입할 수 있다.

특히 예금의 연간 평균잔액 0.1% 해당액을 공익기금으로 지원해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공헌에 활용된다. 예금 가입은 내년 3월 29일까지이며, 도내 모든 농협은행 영업점에서 가능하다. /김재훈 기자

도의회 예결특위, 예산심사 돌입

행정부지사 대상 정책 질의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임상규 행정부지사로부터 전북도 '20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정책질의를 벌였다.

이날 정책질의와 예산안 심사에서 김슬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새만금 공항 건립 등 국가예산 확보와 특별자치도법과 관련해 전북도의 대응상황에 대해 묻고, 전북도의 안이한 대처가 아닌 적극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구정책 및 청년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청년정책과에서 청년단체현황 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해 질타하며, 청년정책 발굴과 적극적인 지원을 강조했다. 장애인복지관 인력 운용과 관련해서는 관련 법정기준 미준수를 지적하고, 인력 충원과 관련해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염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2)은 탄소중립과 관련, 수소차 보급은 증가했으나 충전소 설치 사업 예산이 감소했는데 그 사유를 묻고, 방안과 계획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를 당부했다. 또한, 일부 기관의 출연금이 대행 사업들로 예산이 대폭 늘어난 것과 관련하여 지적하고, 출자 출연기관들이 예산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오현숙 의원(정의당, 비례)은 전북의 도금고 협력사업비가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점과 기금운용에 있어서도 미흡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 지적하며, 적극적인 협력사업비와 기금운용 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타시도의 경우 유사기관에 대해 통폐합이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전북도는 오히려 공기관을 늘리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동화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8)은 군산과 남원의료원의 의료인력 부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안정적인 의료인력 확충방안에 대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며, 행정에서 관리감독을 요구했다.

서난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9)은 완주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하여 묻고, 피해자의 고충에 대해 언급하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의 미흡과 적극적인 개입과 대책 마련 부재를 지적하고, 특히 본 예산에 전혀 편성되지 못한 것에 대해 꼬집고, 전북만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지방소멸 대응차원에서 지역 도서관 건립보다 학교 도서관을 이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공공건물을 공유와 인력운용 방안 등에 대해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개선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전용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진안)은 "최근 전국적으로 세수 부족에 따른 세출 구조조정 등이 불가피한 만큼 전라북도 예산안이 꼭 필요한 사업에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더욱 철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할 것"이라고 다짐하며, "그동안 현장방문 등에서 청취한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담아 도민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심사함으로써 건전한 재정운용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새만금 예산 복원 필요"

한병도 민주 도당위원장 추경호 경제부총리에 피력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익산을 국회의원)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새만금 예산 원상 복원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했다.

지난달 30일 한 위원장은 추 부총리를 만나 민주당 전북 국회의원 일동 명의의 건의문을 전달하고, 막바지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기재부가 새만금 예산 복원에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 위원장이 전달한 건의문에는 새만금 개발이 지난 수십 년간 보수·진보 정권을 초월해 일관적으로 추진해 온 국책사업이고, 최근 새만금 내 민간 투자 유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신속한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예산 반영이 필수적이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국민 삶 돌보는 정치, 지역단위 혁신 정치 약속"

성기청 LX 전 상임감사, 총선 익산갑 출마 공식화

성기청 LX국토정보공사 전 상임감사가 국민의 삶을 돌보는 정치, 지역단위부터 혁신하는 정치를 약속하며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제22대 총선에 익산갑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성기청 전 감사는 지난달 30일 오전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은 파탄 국정은 난맥 외교는 참사에 이어 한반도 평화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곳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탁월함이 이미 검증된 이재명 대표로 반드시 정권교체 할 수 있도록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성 전 감사는 △후보자 간 무제한 토론 △정기적 민원센터 삼청정담 가동 △지표 관리를 통한 시도의원 출마예정자 평가 공개 및 개방 △황등호 복원 △한국형 마이스터고와 이리공고를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의 실무인력을 양성하는 인력수급기지로 탈바꿈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김재훈 기자